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KT 노동조합

TRADE UNION NEWSPAPER

10 02nd

2009년 3월 2일(월)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2월 20~27일 12개 지방본부 주요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

노동조합은 2월 20일(금) 제주지방본부를 시작으로 2월 27일(금)까지 전국 지방본부별로 2009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08년 활동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 △2009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이 논의되었으며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을 돌며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경청해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침체가 지속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며, "노동조합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병 이후 구조조정이나 분리분사설을 불식시키고, 고용불안을 적극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초체력을 다져야만 불황의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독려하며 희망의 원동력이 될 대의원들의 지지와 결의를 부탁했다.

▶ 강원지방본부는 24일(화) 오후 2시 본부회의실에서 조합간부 및 1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강원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강원지방본부 심우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대의원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의원들의 지지와 결의를 호소했다.

정기 지부대회 열려

전국대의원대회 앞두고 대의원 281명 선출

노동조합은 2월 13일(금) 전국적으로 지부대회를 개최하고 각지부의 2008년 활동사항과 2009년 활동계획을 조합원들에 보고했다. 또한 2009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통해 총 281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기업고객센터 지부대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윤오원 사무처장 서리는 김구현 위원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며 "조직개편, KTF와의 합병선언 등으로 현장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위로하고, "일각에서는 KTF와의 합병이 결정되는 시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약속 하건 데 이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조직 내부를 더욱 강력하게 쇄신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말 예정된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지부대회를 통해 선출된 281명의 대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선출하되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 5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했다.

전국대의원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인준에 관한 건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건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구현 위원장 日 NTT노동조합 방문

김구현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지난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일)까지 일본 NTT 노동조합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에 당선된 NTT 노동조합 가토 위원장의 방한에 대한 답례 차 마련됐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될 '제7회 동아시아포럼'의 주제와 시기 등을 논의했으며, 가토 위원장은 주최국인 한국측에 제반 사항 모두를 위임했다.

또한 김구현 위원장과 가토 위원장은 양국 통신노동자의 지속적인 연대 및 상호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 김구현 위원장과 NTT노동조합 가토 위원장.

공정위 '조건없는 합병' 승인… 방통위 조속한 결정 촉구

노동조합, 올해초부터 KT-KTF 합병관련 입장표명 통해 필수설비분리 불가 천명

공정위가 2월 25일 KT-KTF간 '조건없는'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이제 방통위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SKT, LGT 등 업계 일각에서는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자사의 이익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초부터 KT-KTF합병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국회를 두차례 방문해 전달하고 성명서를 통해 경쟁업체들에 대승적 자세를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왔다.

하지만 합병인가를 앞두고 경쟁업체들이 KT사업의 근간인 필수설비 분리를 주장하는 등 견제수위가 도를 넘어, 노동조합은 2월 16일(월)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필수설비 분리에 대한 성명을 내고 단호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피와땀이 서린 필수설비는 KT 조합원에게 있어 단순한 '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SKT를 필두로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원칙적으로는 합병불가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합병승인의 조건으로 필수설비 분리 등의 조건을 다는 등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2월 16일(월)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홍정성 정책3국장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 KTF와의 합병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경쟁사와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KT-KTF 합병은 혼합결합으로 시내, 이동통신서비스 등 개별 통신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며, KT-KTF 합병은 컨버전스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관로·전주설비, 파워콤 및 SO의 HFC망 등 KT 가입자망을 대체할 수 있는 망들이 존재한다"며 "경쟁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제공역량을 고려할 때 KT 가입자 선로가 경쟁업체들의 경쟁열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입자 선로 정도를 제외하면 경쟁업체가 주장하는 KT의 필수설비는 필수설비가 아니며 이번 결합이 필수설비를 취득하기 위한 결합이 아닌 만큼, 결합규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필수설비는 100년 역사속 KT 전 조합원의 피와땀

사실 필수설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연간 700억원 정도의 손실금을 받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KT는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망 유지 보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들은 KT의 필수설비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을 허용하면서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등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특히 필수설비 문제는 이번 합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경쟁사들의 합병 발목잡기 명분은 사라졌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한국 IT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필수설비 분리나 중립화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KT 경쟁력의 근간을 빼앗게 되며, 지나친 규제는 합병 시너지 효과를 갉아먹고 오히려 방송통신산업 활성화에 독이 될 것이다. 방통위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룰을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KT노동조합은 공정위의 조건없는 합병승인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아울러 방통위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유럽 통신사업자 M&A 사례

구분	시기	비고
Mannesmann / Orange	1999	유무선(독일) / 이동(영국)
DT / One2One	1999	유선(독일) / 이동(영국)
Vodafone / Mannesmann	2000	이동(영국) / 유무선(독일 등)
FT / Orange	2000	유선(프랑스) / 이동(영국)
FT / Amena	2005	유선(프랑스) / 이동(스페인)
Telefonica / O2	2006	유선(스페인) / 이동(영국)
Vodafone / Tele2Italy, Tele2Spain	2007	이동(영국) / 유선(이탈리아, 스페인)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2009.02.16)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의한 산재사고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산재자 (사망)	80 (7)	58 (4)	86 (8)	67 (6)	73 (3)	64 (3)	58 (2)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 비용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예상)
투자비	20,164	24,487	21,765	21,765	24,120

<KT조합원 동종 통신노동자보다 저임금 감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기본급 인상률	2%	총액 2% 인상	3% 인상	동결	2.6% 인상	동결

연대 활동

민주노총 비대위-보궐선거 확정

2월 28일(토)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8일(수)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 승인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승인 △비상대책위 사업방향 심의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위원장 임성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8일(가)까지 MB악법 저지 등 당면투쟁사업과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및 임원 보궐선거 실시 등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2월 28일(토)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 이후 매일 오후 7시 용산현장에서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IT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실시

"고용안정, 결합력강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박흥식, 이하 'IT연맹')은 2월 17일(화)~18일(수) 용인 골드훼미리콘도에서 확대간부수련회 및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보고, 예·결산 승인 등을 의결했다.

박흥식 IT연맹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정부의 반노동자정책, IT산업의 침체, 민주노총의 위기 등 단위노조와 연맹을 둘러싼 조건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우려하며, "대의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조합원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위노조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2009년 연맹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자"고 결의를 모았다.

17일 오후에 시작된 식전행사는 18일 대의원대회에 앞서 교육과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명아 노무사가 '경제위기, 구조조정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단위노조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을 했고, 이어 최승혜 강사가 'FUN-리더십과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라는 웃음치료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구조조정, 용산참사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뒤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2009년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본 대회에 앞서 IT연맹 김영삼 사무처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2008년 연맹은 13개 가맹조직에서 19개 가맹조직으로 6개 조직이 확대되는 성과를 낳았다"며, "연맹특성에 맞게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촛불문화제 기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UCC공모전을 치르는 등 IT연맹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선전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사업의 기조와 방향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용안정 ▷단위노조와 결합력 강화 ▷상집간부 혁신 ▷연맹 정체성 확보 ▷연맹 발전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IT연맹 정기대의원대회는 총 79명의 대의원 중 64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건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건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KT노동조합 김배정 대외협력·쟁의국장이 모범조합원 표창을 수여했다.

2009년 신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 우리는 공부하는 조합간부! 지부/분회 조합원들의 희망을 안고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 모습.

▲ 허진 교육선전실장 서리는 첫날 < 조합간부의 자세와 역할> 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 KT노동운동의 방향은?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서리의 <10대 집행부의 활동과제> 강연.

▲ 첫날 밤 10시부터 10개조로 나누어 시작된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분반토론.

▲ "조합원으로부터 사랑받는 집행부, 신뢰받는 집행부가 돼야 합니다."

▲ 우리 조가 최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조별발표 모습.

▲ 2월 2일(월) 신임 지부(분회)장을 대상으로 '2009년 신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이 시작되었다.

▲ "자랑스러운 KT노동조합 간부로서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재확인, 더 많은 교육기회 필요

2박3일간의 신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성황리에 마쳐

"조직개편이다, 합병이다 해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신임 조합간부가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지방-지부/분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절실합니다" ……

노동조합은 2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2박3일 일정으로 KT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09년 신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111명의 신임 지부/분회장을 대상으로 ▲조합간부의 자세와 역할 ▲지부대회 준비와 실전연습 ▲10대 집행부 활동과제 ▲조합원 마음열기 ▲단체협약 ▲산업안전교육 ▲ 복지제도 ▲ 노동가요 및 선전선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신임 조합간부 "공부하는 집행부 만들자" 다짐

교육생들은 첫날인 2일 오후 1시 '한국통신 노조가' 를 힘차게 부르며 입소식을 시작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기 모인 지부장, 분회장님들이 KT노동조합의 중추"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조합간부,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한 "10대 집행부 5대상 중 하나로 <공부하는 집행부>를 내세운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이 신임 지부/분회장 동지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동조합 활성화 주제로 열띤 토론 진행

교육생들은 입소식 후 <조합간부의 자세와 역할>, <10대 집행부의 활동 과제> 등 본격적인 교육일정에 돌입했다.

밤 10시. 1일차 마지막 일정으로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토대로 10개조로 나누어 분반토론을 실시했다. 신임 조합간부들은 자정을 넘긴 줄도 모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과 조합원과의 의사소통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하루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둘째날은 '조합원 마음열기', '이기는 대화' 를 주제로 성인심리연구소 이시은 소장과 수원여대 전성숙 교수가 분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형집 정책1국장이 '단체협약' 에 대해 강연을 했고, 정무길 노무사의 '산업안전교육' 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저녁에는 이희성 트레이너가 '건강과 웰빙스트레칭' 을 주제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팁을 소개했다. 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임 조합간부들은 추운 날씨에 땀이 흐르는 것도 잊고 강연에 집중했다.

노동조합 교육의 중요성 되새긴 2박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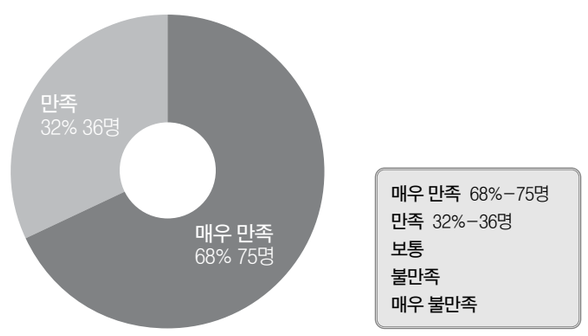
마지막날은 한호섭 복지국장이 KT복지제도를 소개하며 조합원 요구시 조합간부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후 신임 조합간부들은 분반토론 시상을 끝으로 2박3일 간의 교육을 마무리했다.

허진 교육선전실장 서리는 퇴소식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조합간부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10대 집행부는 조합원, 조합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부하는 조합간부가 되어 지부의 역할, 지방/중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조합원들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2009년 신임 조합간부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합간부교육 대폭 확대해야"

총 111명 참가, 68% 매우만족

2009년도 신임 조합간부교육은 조합간부 대상자 113명 가운데 111명이 참가했으며, 불참 및 사고자 없이 무사히 교육을 끝마쳤다. 퇴소 전 설문조사 결과, 68%(75명)가 매우 만족을, 32%(36명)가 만족을 택해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기간 늘리고 정례화 해야

10대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처음 접한 신임 조합간부들은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중앙과 지방, 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했으며, 교육 등을 통해 대화의 장이 확대 되기를 요청했다. 또한 빡빡한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에 찬 교육으로 과정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며 10대 집행부의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과 조합간부 5대상을 고취시켰다.

분반토론을 통해서는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 했으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임 조합간부들은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과거 조합간부 교육보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이번 교육프로그램 중 교양강좌의 효과도 상당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교육기간 연장, 6개월 단위 정례화 실시 등의 요청이 다수 있어, 더 많은 교육기회 마련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앞으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본부 간부를 비롯해 전체 조합간부뿐 아니라 전 조합원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 가슴은 펴고! 목소리는 더 우렁차게! 선전선동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교육생들.

▲ 공통의 목표와 사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간부들의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 첫 지부대회 실전연습, 이정도면 될까요?

▲ <건강과 웰빙스트레칭> 강의 시간. 스트레스, 날려버려~!

▲ 꺾고 구르고 뜀뛰고… 운동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하나된 신임 조합간부들.

"조합원들의 믿음크기 이상의 책임감 느껴"

서부지방본부 서울남부NSC 박태순 지부장

▲ 신임 조합간부로서 소감은

먼저 우리 지부 조합원들이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조합원들의 믿음크기 이상의 책임감을 느낀다.

▲ 교육을 마친 느낌은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부장으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스킬 위주로 구성되어 인상적이었다. 이런 교육을 단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합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바람

제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노동조합 간부 모두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10가지 중 8가지를 못하고 2가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조합원의 정서와 일치한다면 분명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신임 조합간부로서 포부

지금 가지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지는 선택할 수 없어도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소신과 책임보다는 지부조합원들이 떠올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간부 돼야"

대구지방본부 구미지부 김동영 지부장

▲ 신임 조합간부로서 소감

지부장의 역할이 매우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 같다. KT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교육을 마친 느낌은

앞으로의 조합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임 조합간부교육 내내 활기차고 무언가 모으는 꿈틀거림이 느껴져 인상적이었다. 교육 후 조합간부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바람

집행부가 KT노동조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소통' 이 이번 10대 집행부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조합을 위해 더욱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다.

▲ 신임 조합간부로서 포부

노동조합 조직의 일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어보겠다. 이번 교육을 통해 소통을 중시여기고, 조합원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 신뢰받는 조합간부로 활동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굳혔다.

"현장과 함께하는 조합간부 되겠다"

충남지방본부 태안분회 이상호 분회장

▲ 신임 조합간부로서 소감

이 자리에 참석한 초임 조합간부 모두가 그렇겠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앞선다. 나를 지켜보고 있을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싶다.

▲ 신임 조합간부교육을 마친 느낌은

조합간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것 같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고,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교육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고 조합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전에는 KT노동조합이 회사에 끌려 다니는 무능한 조합이라 오해했다. 하지만 여러 활동들을 접해 보니 그것은 집행부의 활동사항을 조합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임 조합간부로서 포부

임기가 끝난 후 되돌아 봤을 때 조합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았던 조합간부가 되고 싶다. 태안 조합원의 아주 작은 고민이라도 함께 나누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현장과 함께하는 조합간부' 가 되겠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기금 지급내역

구분 및 대상				지급액
경조금	축의금	결혼	사원	50만원
			자녀	30만원
		회갑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30만원
		출산	사원/배우자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사망	본인사망(제25조 제2항에 의한 사망)	8,000만원
			※ 배우자	8,000만원(단체보험) 200만원(자살)
			직계존비속/배우자부모	50만원
재난구호금	주택파손(자가)	완전파손		1,000만원
		1/2 이상 파손		700만원
		1/3 이상 파손		350만원
	주택파손(전세)	완전 파손		200만원
		1/2 이상 파손		150만원
		1/3 이상 파손		100만원
	주택침수(본인거주)	완전 침수		300만원
		부분 침수		200만원
주택자금 대부		주택마련자금 융자(이자율3%)		5,000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 융자(이자율3%)		3,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부		긴급가계자금(이자율3%)		2,000만원 한도
대학생자녀 장학금		사원(등기이사,무급휴직자 제외)대학생자녀 - 1인 2자녀 이내, 최대 8학기 지원 - 고등교육법 적용, 외국대학, 기타인정 대학		납부액의 75%
의료비		사원 및 사원건강보험에 등록된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 발생월 초일~익월 말일 본인 부담액 4만원 이상		해당금액 (연간 500만원)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초등학생 6학년 자녀를 둔 사원		1인당 월 10만원
유아교육 보조비		취학전 1년 (지급년도 1.1일 기준 만5세 도달)자녀 - 매년 1~12월까지 최장 12개월		1인당 월 10만원
기념품비		매년초 복지카드로 일시 지급		연간 1인당 30만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구분	내역
대부 대상	긴급 가계자금 소요자
대부 한도	2,000만원(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5,000만원 이내)
이자율	연 3%(2009년 1월부터)
상환 기간	5년 원금 균등상환
채권 확보	보증보험증권 제출
과거채무 적용	- 채무 인정기간 : 2001년 ~ 제도시행 전까지 - 채무 인정범위 : 금융기관 채무증명 + 용도/금액 입증 - 신청횟수 제한 : 2회
대부 제한	- 대부횟수 : 1인 1회 (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 -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사원 - 정년퇴직 5년 이하 사원 - 기타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사원
대부 재원	- 연간 240억원(회차당 40억원, 2개월당 1회) - 신청자수 등 고려 최대 300억원까지
선정 방법	- 예산범위 내 득점순 : 사유별+특성별 • 긴급 가계자금 소요 사유별 구분 • 신청자의 특성별 득점 구분 - 기금대부운영위원회(기관별) 심사기능 부여 - 대부금 지급주기 : 2개월 1회
시행 시기	2007년 1월 1일

결혼기념일 및 장기근속자

구분	결혼기념일	장기근속자
지급내역	1. 결혼기념일 10년, 20년, 30년 2. 위로출장 처리 ※ 교육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2박3일) ※ 본인 및 배우자 여비지급 3. 생활입소 신청기한 - 기념월 전 · 후 1개월	1. 장기근속 20년, 30년, 40년 근속 2. 위로출장 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2박 3일) ※ 본인가족 5인 이내 여비지급 3. 보조금 지급 ※ 20년 - 70만원 ※ 30년 - 100만원 ※ 40년 - 150만원 4. 공로패 수여 5. 생활입소 신청기한 - 기념월 전 · 후 1개월

의료비 지원금

구분	내역
대상	본인, 배우자(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구비서류	1. 병원에서 발급된 전산처리 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값 전산처리 영수증 3. 한도액 : 500만원(매월초부터 익월말까지 발생한 질병으로 수혜자 2개월 4만원 이상)
신청방법	1. 인사시스템 본인 입력(개인별 지급청구서 및 진료영수증 제출) 2. 지급일 : 매월 25일

대학생자녀 장학금

구분	내역
지급대상	1.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 현재 대학생 취학 자녀를 둔 사원 - 사원당 지급자녀 수는 2명 이내 2. 무급휴직자 제외
수혜대상	1. 사원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 -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받은 학위인정대학(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 - 국외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단 어학연수 또는 이수 등 과정은 제외
장학금 범위	1.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기성회비) 2.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에 필수적인 비용과 총학생회비 3. 기타 학교별, 학년별 자율적 경비 제외
지급기준	1. 국내 대학 취학자녀 장학금은 실제 납입액의 75%이며, 국외대학은 국내 사립학교 유사학과(연세대 기준) 학자금의 75% 2. 대학 취학자녀 1인당 최대 8학기이내(동일학년/학기 지급불가)
신청절차	1. 취학자녀 등록(http://insa.kt.co.kr, 복지→학자금) 2.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제출 3. 신청기한 :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수시합격자는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방법	1. 보수지급일에 지급 2. 별도계좌

직장 단체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지급방식	추진방법
재해 사망	8,000만원	정액 지급	단체보험
재해 장해	2,500만원	등급별 차등	
암 진단	1,500만원	정액 지급	
일반 사망	8,000만원	정액 지급	직원 : 복지기금 배우자 : 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대상**

○ 임직원(청원경찰, 전문컨설턴트 포함) 및 배우자
- 임직원 : 중도퇴직자는 연말까지 유지, 신규입사자(선청약 후정산)
- 배우자(2008년 단체교섭 시 확대) : 법적 배우자(호적 등재)로서 부부사원은 제외

○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소멸성 보장. 매년 재계약(' 08. 12 기준 : 2008. 12. 31 ~ 2009. 12. 30)

○ 신규입사자(채용자)는 입사일(채용일) 기준 적용
※ 보험기간 중 퇴직자는 보험 만료시점에 계약해지

■ **단체보험 가입조건**

○ 재해사망(8,000만원) : 단체보험 약관(질병을 포함한 일반사망 제외) 적용

○ 일반사망(배우자 한: 8,000만원)
※ 임직원(청원경찰 포함, 전문컨설턴트 제외)의 일반사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8,000만원 지원

○ 재해장해(최고 2,500만원) : 보험사 등급기준 적용(1 ~ 6등급)

○ 암 진단(1,500만원): 계약기간 중 전이에 관계없이 타 부위 발생시 보험금 지급

○ 청약조건 : 직장단체보험 표준약관 외 특별약관 적용

급식통근보조비 지급

기준	내용
지급 근거	2008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2008.11.13)
지급 내용	월 25만원
시행일	2009년 1월 1일 부터
지급 산식	매월 25만원 - (제외일수(12,000원))
제외 일수	- 휴직기간, 정직기간, 결근일수 -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일수가 월 7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수 ※ 공상휴가 제외, 청원휴가일수에 포함된 휴일 제외 - 현물로 급식이 제공되거나 급식통근비 상당금액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식비, 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교육, 운동선수단 등) - 해외사무소 근무기간 또는 해외교육 파견기간 ※ 차량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준하는 차량제공시 통근보조비 미지급 ※ 신규임용 및 퇴직자(해당월 한) : 근무일수 X 12,000원(25만원 한도)
근무일수가 21일 미만인 달의 경우	- 하루 이상 출근했을 경우 지급산식 적용하여 지급 - 그 달의 전체가 제외일수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 산식 적용하여 지급하되 월 급식통근비 25만원 한도 내 감액

유니폼 지급 기준 개선

노동조합은 2009년 2월 19일 노사협의를 통해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와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유니폼 지급기준 및 기능성을 보완 · 개선했다. 주요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력기술팀, PMC팀 현장요원, 선로기술팀 등 작업복 상향조정 : B형→A형

○ 전송실 현장직원 우의지급

○ 작업복 C형 지급주기 변경 : 2년1착 → 3년1착

○ 기타 기능성 보완 : 개별명찰 부착, 안전화깔창 2착지급, 셔츠주머니 양쪽부착 지급 등

○ 구 유니폼 폐기처분 : 2005년 이전 지급분은 지사단위로 수거후 소각처리

※ 개선된 지급기준에 의해 2009. 4. 25까지 하계유니폼을 지급할 예정이며 5. 1부터 착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유니폼 지급기준 변경사항은 조합홈페이지-자료실-[문서/정책]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성과급 지급 계획

구분	효도휴가비	성과급	차등율
2월	100% (1/22)	50%	미 차등
3월		90%	-20%~ + 5% (연봉 · 호봉제 동일)
5월		50%	미 차등
6월		50%	미 차등
7월		임금보전 50%	
8월		100%	-20% ~ +35% (연봉 · 호봉제 동일)
9월	100% (9/29)		
11월		100%	미 차등
12월		임금보전 50%	

주택자금 대부신청

구분	마련자금	임차자금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구주소가 나오도록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무주택 증명용)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주택자금 차용약정서 및 서약서 5. 계약서 사본 (매매, 분양, 임차계약서) 6. 채권확보 서류 ※ 연대보증인일 경우 : 1년이상 재직 직원으로 1회 가능 ※ 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초과금액 의무제출) 7. 본인 은행 계좌번호 8. 매입 : 등기부등본 1통 9. 분양 : 등기부등본 또는 마련자금 사용 영수증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구주소가 나오도록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무주택 증명용)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주택자금차용약정서 및 서약서 5. 전세금 증액 : 신 · 구계약서 사본 6. 채권확보 서류 ※ 연대보증인일 경우 : 1년 이상 재직 직원으로 1회 가능 ※ 보증보험증권 7. 본인 은행 계좌번호 8. 신규임차 : 전 가족이 이전한 가족관계증명서 1통 9. 전세금 : 대부금사용영수증 1부
대부금	5,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자격요건	1. 3년 이상 근무 2. 10년 상환(1년 거치후 원금, 이자 120개월 - 거치희망은 신청자 선택가능) 3.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직계존속을 부양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4. 세대주 항목 삭제	
신청	상시(마감 : 홀수달 10일)	이자율 연3%(2009년 1월부터)

청원휴가 대상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7	
구비서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 자매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2일
회갑, 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선택 1
사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6	
	자녀	조부모(여직원의 시부모 포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3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2일
	본인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탈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2일
	조부모(여직원의 시부모 포함)					
출산	배우자(처)				3	
	여직원 출산 전후(임신 8개월 이후 유산)				90	휴일 포함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45	
	임신 3개월 이후 유산				3	
	태아검진 휴가				월1일	
재해	수 · 화재 등 중대 재해				3	

기념품비

날짜	기념일	기념품비	지급일
1월 6일	노동조합 창립일	100,000원	※ 매년초 복지카드로 일시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	50,000원	
12월 10일	창사기념일	100,000원	
본인 생일	생 일	50,000원(추가지원 : 다과 및 음료제공)	

국내 이전비

(단위 : 원)

구분	100km이상 200km미만	200km이상 300km미만	300km이상 400km미만	400km 이상
전 직원	35만원	40만원	45만원	50만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원기준

[개인연금]
○ 지급대상 :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기준 : 2001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가입해 계속 불입중인 자 월 불입금 총액의 50%(월 5만원 한도 내) 1999년 5월 22일 이후 입사자 제외
○ 지원금액 : 1997년부터 10년간 매월 10만원(본인 5만원, 회사 5만원)

[연금저축]
○ 지급대상 :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기준 : 2007년 1월 25일 재직자 한
○ 지원금액 : 2007년부터 10년간 매월 5만원

[중고생자녀 학자금]
○ 지원대상 : 중고생 취학자녀를 가진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금액 : 입학 및 등록에 필수적인 비용 전액 무상지원 (고등학교는 80만원 이하)

[하계휴가 보조비]
○ 지급일 : 매년 7월 15일경
○ 지급단가 : 직원 1인당 30만원(월드패스카드)
○ 지원대상 및 기준 : 직원(경영직이상 제외)

[형사피의보상]
○ 지원대상 :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
○ 지원금액 : 무제한(구속기간 중 임금, 벌금, 변호사 수임료(500만원 한도))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 보건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2,810원
○ 근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위탁]
○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3,750원
○ 근거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유해작업장건강관리비]
○ 지원대상 : 선로, 전람, 전력, 전송, 전용, SLMOS, DELMONS, LCR, 시험실, 국제수동교환 등 '노사합의' 에 의해 사업부서(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달한 집행지침 참고
○ 지원단가 : 1주당 6천원(단, 전람직은 1만2천원)

[VDT예방 활동비]
○ 지원대상 : 국제교환업무(국제전화국), 115전보 및 무선통신(전신국), 기업고객상품상담 접수 RSB석
○ 지급기준 : 기관당 월 30만원, 1인당 월 5천원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 측정대상 : 유해작업장(맨홀/축전지실 등) 측정수수료
○ 측정료 : 측정기관과 수수료 별도 협의

[춘추계 체육행사비]
○ 지급대상 : 임직원 및 계약직
○ 지급단가 : 1인당 연간 4만원(춘, 추계 각 2만원)

[건전모임 지원]
○ 지원대상 :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상 · 하반기 각 1만원)

[의약품비]
○ 지원대상 :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만2천원(상반기, 하반기 각 6천원)
○ 지원품목 : 비상구급약(해열진통제, 소독약, 붕대, 소화제 등)

[직원애사 화환비]
○ 지원대상 :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 1건당 15만원

[복지시설 운영비]
○ 구내식당 : 월 50만원 범위 내(대상: 건물상주 인원이 100인 미만인 구내식당 운영기관)
○ 의무실 : 월 3만원
○ 이발소 : 월 5만원
○ 예식장 : 월 10만원
○ 테니스장 : 월 10만원

[장제용품(그릇세트) 지원]
○ 지원대상 : 임직원/배우자 사망시 임직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 400인용까지

[야 · 석식비 지원]
○ 야식비 : 야간근무자에 대해 1일 1,400원
○ 석식비 : 근무시간외 2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해 1일 7,000원

[국가유공자 위로비]
○ 대상 : 국가유공 직원
○ 지원기준 : 1인당 5만원(매년 6월)

[수련관 생활연수 입소여비]
○ 지급대상 : 결혼기념일(10/20/30년), 장기근속(20/30/40년) 등
○ 지원기준 : 복지업무 운영 매뉴얼(수련관 운영) 참조

[운동용품 구입비]
○ 구입기준 : 임직원 1인당 3,000원

[장애인의 날 위로]
○ 대상 : 장애인
○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 장애인의 날(4월 20일) 다과행사

2월 19~20일 강원에서 '이동정책실' 운영

낮에는 현장활동, 저녁에는 간담회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2월 19일~20일 이틀간 강원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 첫 선을 보였다. 이동정책실에 참여한 중앙상집은 아침 일찍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해 현장에서 개통·정비 작업을 했으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태백·정선 조합원들에게 생수 7,200통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양일간, 강원지방본부(강릉 · 양양 · 삼척)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이동정책실은 월 1회 중앙상집간부들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낮에는 가설, 정비, 영업, 망관리 등의 작업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저녁에는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로 구성됐다.

조합원과 함께 개설 · 개통 · 정비 작업

첫 번째 지역으로 강원을 찾은 전형집 정책1국장을 비롯한 중앙상집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가설, 개통,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2조는 영업과 NSC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아침 일찍 강원지방본부 모지부 고객서비스팀으로 출근해 가설팀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 일반전화 가설과 ADSL 개통 작업 등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정비팀과 함께 활동했다.

태백 · 정선 조합원에 생수 7,200통 전달

한편, 노동조합은 이동정책실을 통해 20일(금)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지방본부 태백지부와 정선지부에 생수를 전달했다.

현재 강원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상수도공급량이 7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태백과 정선지역이 심각하다. 중앙본부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서리와 강원지방본부 심우승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노동조합은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가장 절실한 생수를 전달했다. 노동조합이 이날 전달한 생수는 1.8리터 용량 총 7,200통으로 태백지부에 4,800통, 정선지부에 2,400통 전달됐다. 이는 지부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었다.

노동조합, 매달 전국 순회하며 조합원 고충해결 위한 '이동정책실' 운영

노동조합 '이동정책실'은 중앙본부 정책실을 매달 1~2회씩 지부로 파견하여 현장 조합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는 10대 집행부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충을 체험함으로써 필요 시 사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했다.

첫 지부대회를 치르고

전남지방본부 광주NSC 지부장 **김유진**

2009년부터 신임지부장 역할을 바로 수행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행동도 어색하고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차에 김구현 위원장 취임식과 이어진 전남지방본부 수련회를 통해 지부장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리고 원주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신임조합간부 역량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평상시 조합원의 위치에 있을 때와 다른,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남지방본부 임종대 위장님께서 항상 부르짖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조직관리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똑같으니 끊임없이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신임지부장 역량교육을 받고 처음 행사를 치러야 하는 2009년 지부대회. 노조 지부장으로서 자질을 선보이는 시험대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로 마음을 다지니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지부대회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한가지씩 적어가며 챙겨보았다. 사회자가 해야 할 사항과 뒤풀이 준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체크해 나갔다.

광주NSC지부는 시내지부와 다르게 17개 청사에 조합원 208명이 나뉘어 근무하는데 심지어 조합원이 2명밖에 없는 청사도 있다. 지부대회를 앞두고 10대 집행부가 기조로 내세운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지키려면 부지런해져야 했다.

무등산중계소, 순천, 목포현장요원까지 일일이 찾아 다니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어려웠던 점, 현재 당면과제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하였다. 조합원들께서 '직접 찾아와서 대화해주니 큰 힘이 된다'며 성원해 주신 덕분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전남지방본부 임종대 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할 때는 가급적 3분 이내로 작성하고 외워서 하는 게 낫다고 충고해주셨다. 화장실에서나 차 안에서 심지어는 아빠의 체면을 무릅쓰고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지적 받기 일쑤였다. 인상은 굳었고, 목소리는 권위적이었다.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해라',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서면서 지적하는 것도 모자라 내용까지 흉잡았다.

지부대회 D-1. 집행간부들과 리허설을 해보면서 잘못된 점들을 수정해 나갔다. 특히 1부 행사 진행은 사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부인사나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에 '한국통신 노조가'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 드디어 지부대회가 시작되고 사전무대 점검과 열심히 연습한 효과 덕에 직원들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진실함이 전달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1부에 이어서 2부 행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조합원과 한마당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못다한 얘기들로 회포를 풀었다. 지난 1주일 지부대회를 준비하느라 긴장한 탓인지 끝나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노조지부장.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텃밭에서 자라 나는 채소들에 사랑을 쏟듯, 정성을 다해 모두가 행복해지고 활기찬 지부가 될 수 있도록 머슴 같은 지부장이 되겠다. 즐겁게 그리고 조합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부장으로 거듭나겠다.

"광주NSC지부 조합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2009년 국내 노동계 쟁점 현안

노동자 권리수호 위해 노동조합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2009년 국내외를 망라하고 노동자들의 일터가 불안하다. 실물경제의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많은 대기업, 공기업들이 비상경영, 예산절감, 인력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제1의 해결책인양 내세우는 비도덕적 경영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으로 점점 불안해지는 일터

올해 7월이 되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만 2년이 되고, 비정규직법에 의한 첫 정규직 전환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비정규직 고착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사용기간 연장 조치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기해도 되게끔 부추기고 있다.

비정규직 고착화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자영업,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중심으로 우려하던 고용불안이 공기업 및 대기업 정규직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눈앞으로 다가와

2010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수는 확연히 줄 수 밖에 없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3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 노동조합 조직이 힘을 잃으면 그만큼 대표성도 약해져 노사관계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우리정부에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영역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이율배반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복수노조 허용도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2010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노-노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노동계 당사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없이 논의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삭감하고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근로자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 삭감은 연령차별이자 노동조건의 침해다. 또한 해고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근로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009년 대의원 여러분!

3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뵙겠습니다

• **일정** : 3월 25일(수)~27일(금)(예정)
• **장소** : 지리산 수련관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노동조합 최상위 의결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의 한 해 사업을 대의원이 심의하며, 이를 의결할 수 있는 것도 대의원입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고용, 임금, 복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부대회를 통해 선출되신 대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북지방본부(42)
박종국(광진지부), 이주호(성수지부), 송병희(중랑지부), 임광호(중앙지부), 장익훈(동대문지부), 김용대(을지지부), 박영호(전농지부), 김종열(행당지부), 박종진(서울동부NSC지부), 권병옥(광화문지부), 전영복(신촌지부), 김용만(가좌지부), 김동현(아현지부), 승정길(은평지부), 안영환(원효지부), 정윤길(여의도지부), 손진한(용산지부), 강윤식(서울중부NSC지부), 김종성(강북지부), 천종환(공릉지부), 강재운(노원지부), 김정호(도봉지부), 이희창(혜화지부), 안영규(성북지부), 박경수(청량지부), 김승찬(서울북부NSC지부), 홍성천(서울북부NSC지부), 이창주, 최미란(고양지부), 이용선(일산지부), 이진구(파주지부), 안효실(구리지부), 최선이(구리지부), 정성호(남양주지부), 이원용(의정부지부), 한귀영(동두천지부), 한정화(동의정부지부), 정상길(포천지부), 유지영(경기북부NSC지부), 성정희(경기북부NSC지부), 이윤근(서울북부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김재준(서울북부마케팅단지부)

강남지방본부(30)
이강섭(고덕지부), 남기형(발안지부), 박재경(송탄지부), 강광영(이천지부), 윤세설(안성지부), 오금환(수내지부), 김성락(양재지부), 임대철(광주지부), 조성명(용인지부), 최영곤(가락지부), 이봉규(강동NSC지부), 배문서(반포지부), 신양호(남수원지부), 이중근(송파지부), 유보현(성남지부), 고구봉, 장경희(동수원지부), 정우필(평택지부), 박정배(분당지부), 조용희(동부NSC지부), 이종철(강남NSC지부), 오은호, 정성환(수원지부), 최연덕(서초지부), 장영호(강동지부), 남경우(신사지부), 백동현(영동지부), 한창성(경기남부NSC지부), 박종일(경기남부NSC지부), 안병인(경기남부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서부지방본부(36)
김윤철(서인천지부), 유미경(서인천지부), 김영태(부천지부), 김동영(중동지부), 김종필(북부천지부), 민형식(부평지부), 김동렬(김포지부), 김오철(계양지부), 김회대(강서지부), 김유미(강서지부), 김혜광(목동지부), 이종길, 곽영자(안산지부), 최종문(구로지부), 김영필(금천지부), 김진규(동작지부), 최동춘(관악지부), 한재명(대방지부), 유재덕(시흥지부), 최오회(안양지부), 임영락(서안양지부), 김낙현(군포지부), 임창식(영등포지부), 권영준(개봉지부), 장경석, 허영미(인천지부), 오제철(송도지부), 이현오(숭의지부),
박은규(연수지부), 신기복(서울강서NSC지부), 박태순(서울남부NSC지부), 방동석(경기서부NSC지부), 김영주(인천NSC지부), 임수성(인천서부NSC지부), 김용철(인천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이범희(인천마케팅단지부)

부산지방본부(40명)
조태원(서면지부), 인창연(대연지부), 남상길(북부산지부), 손희준(구포지부), 김동철(부산강서지부), 김인제(울산지부), 김석준(동울산지부), 임태복(남울산지부), 박균하(남울산지부), 이영곤(창원지부), 김미순(창원지부), 박하린(진해지부), 손현배(마산지부), 정봉순(동마산지부), 고완배(동래지부), 김성덕(금사지부), 김석득(금정지부), 이기학(동부산지부), 조현배(해운대지부), 백범기(서부산지부), 이명현(중부지부), 김진용(사하지부), 임옥정(영도지부), 임재식(남부산지부), 백권춘(통영지부), 박영원(거제지부), 박진한(김해지부), 서부기(양산지부), 강동만, 김지수, 김채경(진주지부), 김주경(동진주지부), 손희동(서부산NSC지부), 김유정(서부산NSC지부), 박상인(동래NSC지부), 권상기(동부산NSC지부), 백한준(울산NSC지부), 표남진(경남NSC지부), 박희철(진주NSC지부), 김상찬(부산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대구지방본부(31)
김학섭(북대구지부), 허운하(칠곡지부), 정명호(왜관지부), 이홍기(서대구지부), 남내원(남대구지부), 안효정(월배지부), 허인택(동대구지부), 하명애(동대구지부), 박욱정(경산지부), 정창욱(수성지부), 이영자(수성지부), 배우일(대구지부), 백명기, 박인숙(포항지부), 이원종(북포항지부), 김성욱(경주지부), 김동영(구미지부), 박명서(김천지부), 박종범(상주지부), 김시동, 안후분(안동지부), 이찬원(서안동지부), 김창진(영주지부), 강진구(대구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손창영(대구마케팅단지부), 김일수(대구NSC지부), 이은주(대구NSC지부), 석정규(동대구NSC지부), 주경문(동대구NSC포항지부), 이주일(안동NSC지부), 박병규(안동NSC구미지부)

본사지방본부(23)
박종훈(물류센터지부), 유재영(자산개발센터지부), 이성수(자산운용센터지부), 천성영(인재개발원지부), 김용범(SD부문지부), 김용관(SD부문지부), 임한복, 김응하(중앙연구소지부), 이정현, 이미애(기업고객센터지부), 봉미애(국제전화국지부), 김정권(SMB운용센터지부), 김형율, 최정란(망관제센터지부), 강석원(IP운용센터지부), 이행종, 이숙희(국제통신센터지부), 박정서(국제위성센터지부), 박상규(위성운용센터지부), 이정석(네트워크건설센터지부), 노일철(기술지원본부지부), 금향미(기술지원본부지부), 남정현(네트워크연구소지부)

전남지방본부(21)
윤혜자(광주지부), 류철웅(북광주지부), 김용삼(서광주지부), 이동우(남광주지부), 방극연(상무지부), 김학중(광산지부), 김광수(하남지부), 박종광, 조수진(목포지부), 전남재(동목포지부), 정광우(하당지부), 채희원(해남지부), 김진옥(순천지부), 손명자(순천지부), 심금식(광양지부), 김응연(여천지부), 박태순(여수지부), 김유진, 김애정(광주NSC지부), 박철오(목포NSC지부), 박상운(순천NSC지부)

전북지방본부(11)
윤기성(전주지부), 최갑성(남전주지부), 진홍윤(남원지부), 이종구(북전주지부), 고대용(북전주지부), 김인수(동전주지부), 김성수(군산지부), 최왕주(정읍지부), 정광모(김제지부), 황정택(전북NSC지부), 박창규(서부NSC지부)

충남지방본부(21)
김경찬(대전지부), 유종선(용전지부), 김문상(서대전지부), 고 은(서대전지부), 장대연(논산지부), 한금수(둔산지부), 이광엽(유성지부), 나연철(공주지부), 박경순(천안지부), 조규정(남천안지점), 윤경식(아산지점), 서승택, 유병호(홍성지부), 이상현(서산지부), 홍두표(당진지부), 오종광(보령지부), 안상표(대전마케팅단지부), 안영근, 최장복(대전NSC지부), 박찬국(충남NSC지부), 이치영(대전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지부)

충북지방본부(7)
이영무(청주지부), 박상순(남청주지부), 이학승, 백현정(서청주지부), 남기태(충주지부), 김병대(제천지부), 김종원(충북NSC지부)

강원지방본부(13)
김득중(원주지부), 최두순(원주지부), 한광용(춘천지부), 공성규, 홍순숙(춘천지부), 이근재(강릉지부), 김남숙(강릉지부), 김성길(속초지부), 우창기, 이춘근(동해지부), 박재호(강원NSC(원주)지부), 오흥주(강원NSC(강릉)지부), 최규헌(강원NSC(춘천)지부)

제주지방본부(6)
김익수(제주마케팅단지부), 김희철(네트워크지부), 김석철(제주지부), 최태종(신제주지부), 강상수(서귀포지부), 김정호(성산포지부)